

한국적 부모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발달특성과의 관계 -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책임감을 중심으로 -

임 정 하¹⁾

뉴욕주립대학교 소아청소년정신과

본 연구는 한국적 부모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특성 중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책임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각 발달특성에 기여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청소년의 발달단계(초기 및 후기)와 성별을 고려하여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서울 및 주변 도시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439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임정하와 정옥분(2004)의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와 이차선(1999)이 수정한 자아존중감 검사를 사용하고 Conrad와 Hedin(1981)의 사회적 책임감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기술통계, Pearson의 상관분석 및 z검증과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적 부모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책임감 발달과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둘째, 한국적 부모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책임감 발달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부모의 관심은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기여하고, 어머니의 가르침은 자녀의 사회적 책임감 발달에 크게 기여하며 아버지의 불신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책임감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적 양육행동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책임감 발달에 있어 전반적으로 청소년초기집단보다 후기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어머니는 자녀의 성별이나 발달단계에 관계없이 사회적 책임감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한국적 부모 양육행동, 청소년, 자아존중감, 사회적 책임감

1) 교신저자 : 뉴욕주립대학교 소아청소년정신과 박사후연구원 (E-Mail : jlim8@buffalo.edu)

I. 서 론

최근 청소년기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행동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과 분리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였다(Collins, 1990; Paikoff & Brooks-Gunn, 1991). 아동에서 청소년으로의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 맥락적 변화 등이 일어남에 따라 양육행동에서도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자율성을 획득하고자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부모들도 자녀에 대한 통제나 관여를 점차 완화시켜 나가게 된다. 따라서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는 아동기 때와 달리 보다 평등한 양상으로 변해가게 된다(Feldman & Gehringer, 1988; Furman & Buhrmester, 1992). 이러한 시기에 부모가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동시에 자녀를 적절히 지도하여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부여하고 사회적 규범을 습득하게 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도 책임의식을 갖도록 지도하는 일은 청소년 개인과 그가 속한 사회에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부모가 사회화에 관여하는 일차적 존재라는 점은 어느 사회문화적 맥락에서나 공통적이라 할 수 있으나 자녀의 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도방법이나 양육행동의 고유한 특성은 개인이 속한 사회나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주의 사회인 서구 사회의 양육에 대한 개념이 집단주의 문화인 한국이나 중국 등 아시아권의 양육에서 나타나는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잘 뒷받침한다(Chao, 1994; Fuligni, 1997; Kim & Choi, 1994 등). 이는 또한 한국 부모의 양육행동을 개념화하거나 측정할 때 문화적 맥락을 반드시 고

려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예를 들면, 한국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발달특성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할 때 자녀교육과 관련된 부모의 상보적 역할이나 가정 내 인성교육의 기능과 같은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전통 양육에서 부모는 ‘엄부자모(嚴父子母)’로 표현되는 이분화된 기능을 수행하였고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였다(정옥분 외, 1996). 시대 변화에 따라 이러한 역할이 일부 공유되어 가는 추세라고는 하나, 한국 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은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육행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고 ‘부모’로 한 번에 응답하도록 하거나 어머니의 양육행동만을 조사한 후 부모의 양육행동을 대표하는 것으로 본 연구들(박영신과 김의철, 1998; 이순형과 이영미, 1992; 원유미, 1999)로는 이러한 부모 역할의 특성을 비교하고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녀의 발달특성과 관련된 한국 부모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뿐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행동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한국적 양육행동이라 함은 한국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을 바탕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나타내는 일상적 행동과 태도를 말한다. 임정하와 정옥분(2004)에 따르면 한국적 양육행동에서는 부모가 가정교육을 통해 자녀의 인격을 함양시키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강조된다. 또한 바람직한 자녀 양육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버지는 이성적이고 감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어머니는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자녀의 말이나 행동에 마음을 놓지 못하고 부모가 일일이 지나치게 관여하는 행동은 한국적 양육행동의 역기능적인 차원이라고 보았다.

국내에서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특성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의 자아개념이나 자아존중감(서정숙, 2002; 신나나와 도현심, 2000; 이사라와 박성연, 2001; 이숙·우희정·김미란, 2000), 자아정체감(박선영, 1987)과 같은 개인정적 영역에서의 발달이나 비행 및 이탈(최재경, 1995; 황규숙, 1999), 우울, 불안 등(김혜영, 2000; 손석한 외, 2001; 허유정, 2002)과 같은 부정적인 특성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부모가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할수록, 자녀를 지지할수록,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이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방임이나 학대와 같은 역기능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부정적인 발달결과를 설명한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행동 결과 청소년이 부정적응이나 이탈과 같이 부정적인 발달특성을 보이지 않는 것만으로는 자녀양육행동의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부정적 발달결과를 감소뿐 아니라 긍정적 발달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때 적절한 양육행동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모 양육행동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 다루어 온 청소년의 개인적 발달특성에서 더 나아가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배양할 수 있는 사회도덕적 발달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모는 청소년을 사회화시키는 일차적 담당자로 자녀

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격려하고 지도하거나 자녀에게 직접 모범을 보임으로써 바람직한 사회도덕적 특성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부모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발달특성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특성인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책임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전자인 자아존중감은 자기정적 특성으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이다(Gurney, 1988). 이는 기본적인 긍정적 발달특성의 하나로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졌으나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성별에 따라 양육행동과 관련되는 양상은 연구마다 차이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후자인 사회적 책임감은 청소년의 사회도덕적 특성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개인의 이익과 연관되지 않더라도 사회 구성원의 복지에 관심과 의무감을 갖고 개인의 행동이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세를 말한다(Conrad & Hedin, 1981). 이는 선행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성숙한 사회인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격의 하나로 이와 관련된 부모의 양육행동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덧붙여 개인정적 특성인 자아존중감과 사회도덕적 특성인 사회적 책임감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양육행동과 이들 두 수준의 특성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모 양육행동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다.

한편, 부모 모두의 양육행동을 조사한 몇몇

연구를 바탕으로 보면, 양육행동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의 학년이나 부모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면, 중고생 3000명을 대상으로 한 박정희(2002)는 중학생의 경우 아버지가, 고등학생의 경우 어머니가 자녀의 심리사회적 성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여학생의 심리사회적 성숙에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가정교육이, 남학생의 심리사회적 성숙에는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가정교육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Tsay(1998)도 남학생의 심리적 적응에는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여학생의 심리적 적응에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중·고등학교 2학년생 144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정영숙 외, 1999)에서는 남학생의 외면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버지와의 관계 및 어머니와의 관계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경우는 어머니와의 관계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남학생은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외면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Sharp와 Cowie(1998)의 연구에서도 남아의 행동은 부모 모두의 규칙이나 규범에 영향을 받고, 여아의 행동은 어머니의 통제행동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부모 모두의 양육행동이 영향을 미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그 예로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관한 서정숙(2002)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이 자아개념 발달과 부적으로 관련되나 어머니의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은 정적으로 관련되었고, 여학생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정·감독·과잉기대가 자아개념 발달과 모두 정적으로 관련되었다. 이는 결국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발달특성 간의 관련성을 살펴볼 때 청소년의 발달단계나 부모 및 청소년의 성별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각 발달특성에 기여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청소년의 발달단계(초기 및 후기)와 성별을 고려하여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국적 부모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발달특성(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책임감)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한국적 부모 양육행동으로 청소년의 발달특성(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책임감)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러한 설명력은 청소년의 발달단계나 성별에 따라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주변 도시(경기도 안양·고양)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학교 2학년생과 고등학교 2학년생은 각각 대략 청소년기 초기(11~14세)와 후기(15~19세)에 해당하므로(Fabes & Martin, 2000) 청소년의 발달단계별로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 이들 학년을 선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있는 가정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므로 편부모 가정 청소년의 자료는 수집 후 제외하였다. 서울과 주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5개교와 고등학교 5개교를 유의표집 하였다. 10개 학교 16학급의 남녀학생 48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용 질문지

를 배부하였다. 회수한 질문지는 460부(회수율 95%)였으며 이들 중 편부모 가정의 자료나 부실하게 기재된 자료를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 포함된 것은 439부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발달단계별로 보면, 중학교 2학년생은 46.7%로 평균연령은 13.7세, 이들 중 남학생은 117명, 여학생은 88명이었으며, 고등학교 2학년생은 53.3%로 평균연령은 16.6세, 이들 중 남학생은 104명, 여학생은 130명이었다. 전체 대상자를 성별로 나누어보면, 남학생 50.3%, 여학생 49.7%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고졸 48.0%, 대졸 28.6%, 중졸 이하 9.0%, 대학원졸 이상 8.4%, 무응답 6.0%였으며, 어머니의 경우 고졸 54.0%, 대학졸 21.2%, 중졸 이하 14.8%, 대학원졸 이상 3.8%, 무응답 6.2%였다. 또한 부모의 직업별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판매·서비스직 33.4%, 사무직 21.0%, 전문기술직 15.7%, 관리·전문직 11.7%, 기타 12.9%, 무응답 5.3%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가 45.5%로 가장 많았고 판매·서비스직 23.9%, 사무직 8.2%, 전문기술직 4.9%, 관리·전문직 1.5%, 기타 10.5%, 무응답 5.5%로 나타났다.

측정도구의 구성

한국적 부모 양육행동

한국적 부모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임정하와 정옥분(2004)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정옥분 등(1996)이 국내 전통 문헌 연구를 통해 정리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지켜야 할 도리인 ‘부자십이지덕목(父慈十二之德目)’을 토대로 하여 현대적 활용방안으로 제시한 청

소년기 부모의 부자(父慈)에 관한 가정교육 지침과 현대 양육 연구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행동 및 태도를 포함하여 일차적으로 문항을 개발하였다. 문항분석과 요인분석을 이용해 아버지 양육행동과 어머니 양육행동 문항을 각각 선별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 척도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32문항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30문항에 대해 청소년 자녀가 보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식(‘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다소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답하게 되어 있다. 아버지의 양육행동 척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모두 각각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신 요인(부 11문항, 모 12문항)은 ‘나와 관련된 일이 잘못되면 무조건 내 탓으로 돌리신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자녀의 말이나 행동을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도 일일이 지적하며 자녀를 부모의 뜻대로 움직이려 하는 것을 말한다. 존중 요인(부 8문항, 모 5문항)은 ‘내 의견에 찬성하지 않으실 때도 내 의사를 존중해주신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녀의 감정을 인정하고 자녀의 의견이나 태도를 이해하고자 하며 이성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자녀의 역량과 가능성을 귀하게 여기는 행동을 말한다. 가르침 요인(부 7문항, 모 9문항)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우라고 말씀하신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자녀에게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배려를 가르치고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 기초질서나 공공의식을 깨닫도록 이르는 등 인격교육과 관련된 것이다. 끝으로 관심 요인(부 4문항, 모 6문항)은 ‘내 친구들이 누구인지 아신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녀가 방과 후에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알고 자녀의 교우관계에 대해 아는 등 자녀의 생활 및 행동과 관계된 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와 관련된다.

임정하와 정옥분(2004)에 따르면 공통요인분석에서 아버지 양육행동 4개 하위요인의 총 설명변량은 38.87%, 어머니의 양육행동 4개 하위요인의 총 설명변량은 37.68%로 나타났으며,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와 한국판 부모-자녀결합 형태 검사(문경주와 오경자, 2002)와의 관련성에서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임정하와 정옥분(2004)이 척도개발시 보고한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아버지 양육행동의 경우 불신 .85, 존중 .84, 가르침 .81, 관심 .68, 어머니 양육행동의 경우 불신 .83, 존중 .77, 가르침 .81, 관심 .80으로 나타났으며 3주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아버지양육행동 .73~.78, 어머니양육행동.71~.8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는 아버지 양육행동의 경우 Cronbach의 α .62~.89, 어머니 양육행동의 경우 .76~.87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Gurney(1988)의 자아존중감 검사 개정판(Self-Esteem Inventory - Revised)을 번안한 이차선(1999)의 자아존중감 검사로 측정하였다. 이 검사는 Coopersmith (1967)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검사(Self-Esteem Inventory)를 수정하여 제작한 것이다. 자아존중감 검사는 총 32문항으로 4개의 하위척도로 되어 있다. 먼저 일반적 자아에 대한 것은 14문항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내포하는 것이고 사회적 자아에 대한 것은 6문항으로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와 느낌을 포

함하는 것이다. 가정적 자아에 대한 것은 5문항으로 가정생활에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평가적 태도와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느낌을 포함하는 것이며 학교 자아에 대한 것은 7문항으로 학교생활에서의 적응과 유능함 및 학업적 평가를 포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하위척도 문항의 점수를 모두 합산한 자아존중감 총점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 1점, ‘아니다’ 0점으로 평정하였다. 자아존중감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32점이다. Gurney (1988)가 5주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6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차선(1988)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Cronbach의 α .84로 나타났고, 준거변인인 자아정체감과 관계에서 상관계수가 .74로 나타나 준거관련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Cronbach의 α .82로 나타났다.

사회적 책임감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감을 측정하기 위해 Conrad와 Hedin(1981)이 개발한 사회적 책임감 척도(Social and Personal Responsibility Scale: SPRS)를 연구자가 번안한 후 문항제시 형태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 책임감 척도는 총 19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서는 4점 리커트식(‘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다소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답하게 되어 있다. 이 척도는 크게 5개의 하위척도로 되어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태도 척도(4문항)는 개인이 사회 내 문제나 쟁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염려하는 정도를 평가하며, 의무에 대한 태도 척도(4문항)는 개인이 사회적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

도를 평가한다. 유능감 척도(3문항)는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실천함에 있어 스스로를 얼마나 유능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평가하고, 효능감 척도(4문항)는 개인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사회나 환경을 증진시키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끝으로 수행력 척도(4문항)는 자신이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척도 문항의 점수를 모두 합산한 사회적 책임감 총점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때 사회적 책임감 총점의 범위는 19점에서 76점이다. Conrad와 Hedin (1981)은 4000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책임감 척도의 신뢰도가 매우 높았다고 보고하였으며(Cochran의 Q .83) 교사가 평가한 학생의 사회적 책임감 점수와와의 상관을 통해 공인타당도가 높음을 입증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수정된 사회적 책임감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Cronbach의 α .76이었다.

연구절차

예비조사 단계에서 국내에서 사용된 바 없는 사회적 책임감 척도를 변안하여 사용해 보았다. 사회적 책임감 척도를 연구자가 우리말로 변안하고 이에 대해 이중 언어사용 대학원생의 감수를 받은 후, 2003년 8월 4일에서 7일까지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시험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항을 제시한 형태가 청소년들에게 익숙하지 않아 이중응답을 한 경우가 많고, 한 문항 당 제시되는 예문이 두 가지 형태이므로 일반 질문지 문항보다 길고 복잡해 이를 끝까지 읽지 않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질문지의 문항제시 형태를 일반적인 형태로 수정하여 2003년 8월 11일에

서 16일까지 청소년 79명을 대상으로 다시 예비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응답상의 어려움이 수정되고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본 조사는 2003년 8월 26일에서 9월 6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중학교 5개교와 고등학교 5개교 총 16학급의 청소년 48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용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각 학교의 교사를 통해 수업시간에 질문지를 배부하고, 그 자리에서 작성하도록 하였다. 질문지를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20~30분 정도였다. 질문지 배부와 수거에 협조해 준 교사들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작은 답례품을 전달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는 460부(회수율 95%)로, 이들 중 편부모 가정의 자료(11부)와 부실하게 기재된 자료(10부)를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 포함된 것은 439부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보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발달특성(자아존중감, 사회적 책임감)과의 관련성을 Pearson의 상관분석으로 살펴보고, 두 상관계수의 크기가 유의하게 다른지를 비교하기 위해 z 검증(Kanji, 1999)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으로 청소년의 발달특성(자아존중감, 사회적 책임감)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적 분석방법은 중다회귀분석의 여러 방법 중 영향력 있는 변인을 찾아내고자 하거나 변인들 간의 새로운 관계성을 모색하는 탐색적 연구에 적절하므로(양병화, 1998) 이 방식을 택하였다. 각 회귀모형을 산출하기 전에 해당 자료가 중다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검토하였다. 즉 먼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산포도를 통해 이들 변인간의 선형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기본 통계치인 표준화된 잔차의 크기(표준점수의 ± 3.0 기준), Mahalanobis의 거리, Cook의 거리, Leverage값을 살펴보고 극단치를 제거하였다. 다음으로, 잔차가 예측된 종속변인인 점수에 대해 정상분포여야 한다는 가정을 만족시키는지 살피기 위해 잔차 산포도를 통해 표준점수 0을 기준으로 분포된 점들이 직사각형 분포를 이루는 것을 확인하였다. 잔차항 간의 독립성을 살피기 위해 Durbin-Watson의 d 통계치를 확인한 결과, 잔차항들이 독립적이라고 보는 2에 근접한 값을 나타내었다. 끝으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살피기 위해 분산팽창인수(VIF)가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1에 근접한 값(1.0에서 1.93 사이)으로 나타났다(VIF가 10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허명희, 1999 참고). 이상의 모든 경우 가설검증 시 유의수준으로 $\alpha = .05$ 를 기준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SPSS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한국적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발달특성과의 관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하위요인과 청소년의 발달특성(자아존중감, 사회적 책임감)의 기술통계치와 이들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표1에 제시하였다. 청소년이 지각한 양육행동에서 아버지의 불신과 어머니의 불신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책임감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존중, 가르침, 관심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책임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대체적으로 청소년들은 부모의 불신이 적고 부모가 자신을 존중하고 관심을 보이며 자신에게 가르침을 많이 한다고 지각할수록 높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책임감을 나타냈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책임감 간의 상관관계($r=.48, p < .0001$)가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행동이 이들 두 변인과 관계되는 정도나 패턴은 차이를 보였다. z 검증(Kanji, 1999)을 통해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계수와 양육행동과 사회적 책임감간의

표 1. 한국적 부모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책임감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아버지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			
		불신	존중	가르침	관심	불신	존중	가르침	관심
문항평균		2.37	3.18	3.70	3.10	2.34	3.39	3.83	3.62
표준편차		.77	.77	.64	.84	.69	.68	.58	.72
자아존중감	.55								
	.17	-.30***	.24***	.12*	.19***	-.23***	.13**	.19***	.26***
사회적 책임감	2.89								
	.32	-.22***	.30***	.28***	.18***	-.10*	.22***	.38***	.33***

* $p < .05$, ** $p < .01$, *** $p < .001$.

상관계수, 즉 두 상관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가르침($z=3.15, p < .01$)과 아버지의 가르침($z=2.47, p < .05$)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보다는 사회적 책임감과 더욱 밀접히 연관되었으며, 어머니의 불신은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감보다는 자아존중감과 더욱 밀접히 관련되었다($z=-1.97, p < .05$).

한국적 부모 양육행동으로 설명한 청소년의 발달특성

한국적 부모 양육행동으로 청소년의 발달특성(자아존중감, 사회적 책임감)을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부모의 양육행동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책임감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부모의 양육행동 각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아버지의 불신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9%였고, 다음으로 잘 설명하는 변인은 어머니의 관심이었으

며 추가 설명력은 4%였다. 끝으로 아버지의 관심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데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추가 설명력은 2%였다. 즉 양육행동에서 아버지의 불신 및 관심과 어머니의 관심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이었으며 이들 세 변인의 설명력은 14%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자녀를 불신하지 않으며 자녀에게 적절한 관심을 보이고 어머니가 자녀에게 관심을 보일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성별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양육행동 각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각각 단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불신과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관심은 각 집단별로 산출한 회귀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양육행동 하위변인들의 설명력은 집단에 따라 약 9%에서 19% 사이였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청소년후기인 고2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우 19%로 가장 높았고 청소년초기인 중2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우 약 9%로 가장 낮았다.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초기청소년들보다는 후기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보다 잘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버지의 불신, 어머니의 관심은 두 모형에서 모두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관심은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만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초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 비교해 아버지 양육행동의 설명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한편,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형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여

표 2. 한국적 부모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B	β	R^2	ΔR^2	ΔF
자아 존중감	부) 불신	-.17	-.26***	.09	.09	41.82***
	모) 관심	.23	.18***	.13	.04	22.85***
	부) 관심	.20	.12**	.15	.02	6.72**
(상수항 = 14.53)				$R^2_{adj.} = 14.00 \%$		

** $p < .01$, *** $p < .001$.

표 3.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성별에 따른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대상	독립 변인	B	β	R^2	ΔR^2	ΔF
초기 청소년	부)불신	-.13	-.22**	.06	.06	13.33***
	모)관심	.25	.20**	.10	.04	8.90**
	(상수항 = 15.61)	$R^2_{adj.} = 9.20 \%$				
후기 청소년	부)불신	-.20	-.30***	.11	.11	29.39***
	부)관심	.32	.19**	.17	.06	15.49***
	모)관심	.23	.17**	.20	.03	7.46**
(상수항 = 14.17)		$R^2_{adj.} = 18.50 \%$				
남	부)관심	.44	.27***	.07	.07	16.29***
	부)불신	-.14	-.22**	.12	.05	11.89**
	(상수항 = 16.34)	$R^2_{adj.} = 11.0 \%$				
여	부)불신	-.19	-.30***	.12	.12	20.17***
	모)관심	.37	.27***	.19	.07	19.30***
	(상수항 = 14.34)	$R^2_{adj.} = 18.40 \%$				

** $p < .01$. *** $p < .001$.

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보다 잘 설명하였다.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아버지의 불신 외에 어머니의 관심이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데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하위요인(불신, 관심)만이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데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각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7%로 매우

표 4. 한국적 부모 양육행동과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B	β	R^2	ΔR^2	ΔF
사회적 책임감	모)가르침	2.48	.24***	.17	.17	90.37***
	부)불신	-1.77	.23***	.23	.06	31.25***
	모)관심	1.27	.15**	.25	.02	9.74**
	부)가르침	1.17	.12*	.26	.01	5.58*
	(상수항 = 40.72)	$R^2_{adj.} = 24.80 \%$				

* $p < .05$. ** $p < .01$. *** $p < .001$.

높았다. 다음으로 잘 설명하는 변인은 아버지의 불신이었으며 추가 설명력은 6%였다. 덧붙여 어머니의 관심, 아버지의 가르침도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감을 설명하는 데 유의하게 나타났다. 추가 설명력은 각각 2%와 1%였다. 즉 양육행동에서 어머니의 가르침과 관심, 아버지의 불신과 가르침은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감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이었으며 이들 네 변인의 설명력은 약 25%로 상당히 높았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타인에 대한 배려 및 사회 질서에 대해 일상적으로 가르치고 인성 교육을 하며 자녀에게 관심을 보일수록, 아버지가 자녀를 미더워하고 자녀의 생활에 지나치게 관여를 하지 않으며 자녀에게 타인에 대한 배려나 사회 질서에 대해 일상적으로 가르칠수록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성별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각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각각 단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가르침은 각 집

단별로 산출한 회귀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감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때 어머니의 가르침이 단독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감을 설명하는 정도는 집단별로 13~2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어머니의 관심, 아버지의 불신, 관심, 가르침이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감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이었으며, 이들 요인의 추가설명력을 포함하면, 집단별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22%에서 29%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후기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우 29%로 가장 높았고 그 외의 집단에서는 22%에서 24%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별로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감을 설명하는 데 유의한 변인을 살펴보면, 초기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어머니의 가르침, 관심, 아버지의 불신이었고, 후기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어머니의 가르침과 아버지의 불신 외에 아버지의 관심과 가르침이 추가되면서 청소년초기집단에 비해 아버지의 영향력이 높아졌다. 한편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어머니의 가르침, 아버지의 불신이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감을 설명하는 데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이들 두 변인 외에 어머니의 관심, 아버지의 가르침이 사회적 책임감을 설명하는데 유의한 변인으로 추가되었다.

표 5.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성별에 따른 양육행동과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대상	독립변인	B	β	R^2	ΔR^2	ΔF
초기 청소년	모)가르침	2.66	.25**	.17	.17	42.56***
	모)관심	2.06	.24**	.21	.04	10.47**
	부)불신	-1.51	-.19**	.25	.04	9.60**
	(상수항 = 39.99) $R^2_{adj.} = 23.60\%$					
후기 청소년	모)가르침	2.73	.27**	.19	.19	49.24***
	부)불신	-2.41	-.30***	.27	.08	23.05***
	부)관심	1.01	.14*	.29	.03	8.64**
	부)가르침	1.60	.16*	.31	.01	4.12*
	(상수항 = 41.84) $R^2_{adj.} = 29.40\%$					
남	모)가르침	4.20	.42***	.20	.20	50.95***
	부)불신	-1.80	-.22***	.25	.05	13.57***
	(상수항 = 42.57) $R^2_{adj.} = 23.80\%$					
여	모)가르침	1.79	.17*	.13	.13	33.58***
	부)불신	1.63	-.22***	.19	.05	14.42***
	모)관심	1.51	.18*	.22	.03	8.50**
	부)가르침	1.46	.16*	.23	.02	4.93*
	(상수항 = 41.72) $R^2_{adj.} = 21.80\%$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한국적 부모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발달특성과의 관계

한국적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특성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책임감과 전반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실질적 측면에서 이들 관련성의 강도는 하위 요인에 따라 중간에서 약한 정도까지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를 청소년의 발달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부모가 자녀를 못 미더워하고 자녀의 생활에 지나치게 관여한다고 생각할수록 낮았으며 부모가 자녀를 이성적 판단을 바탕으로 존중할수록, 자녀에게 관심을 보이고 가르침을 많이

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감은 부모가 자녀를 못 미더워하고 자녀의 생활에 지나치게 관여할수록 낮았으며 부모가 타인에 대한 배려 및 공공의식에 대해 일상적으로 많이 가르칠수록, 자녀를 이성적 판단을 바탕으로 존중할수록, 자녀의 방과 후 일과나 교우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을수록 더 높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지각을 토대로 살펴본 선행 연구(신나나와 도현심, 2000; 이숙·우희정·김미란, 2000; 정영숙 외, 1999; Erel & Burman, 1995)에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나 자아개념과 유의하게 관련된 결과 및 부모와 청소년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애정적일수록 청소년의 사회화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와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르침은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감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된 반면, 어머니의 불신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었는데, 이는 부모 양육행동의 각 하위요인이 청소년의 특정 발달특성에 다른 방향과 다른 정도로 관련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국적 부모 양육행동으로 설명한 청소년의 발달특성

위와 같은 관련성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적 부모 양육행동으로 청소년의 발달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분석해 본 결과, 양육행동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책임감의 상당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명력은 양육행동 특정 하위요인에 따라, 청소년의 발달단계나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발달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먼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정

도에 대해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행동으로 청소년자녀의 자아존중감 14%를 설명할 수 있었다. 양육행동 하위요인 중 아버지의 불신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가장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 다음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심 순이었다. 부모의 양육행동으로 중2 집단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데 있어 고2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떨어졌는데, 이는 청소년 초기인 이 시기가 사춘기로 개인 내적인 변화가 지속되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이므로 부모와의 관계도 일시적으로 소원해질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데 있어 남학생의 경우는 아버지의 영향만이 단독으로 나타나고 여학생의 경우는 부모 양측의 영향이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이해함에 있어 남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 발달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다는, 이때까지 상대적으로 어머니와의 관계에 비해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했을지라도 청소년 시기에는 남학생에게 성숙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동성인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대두되므로 자아존중감 형성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영향력이 단독으로 크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자녀의 심리사회적 성숙에 주로 동성 부모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박정희, 2002; Tsay, 199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감을 설명하는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행동으로 청소년자녀의 사회적 책임감 중 약 25%를 설명할 수 있었다. 양육행동 하위요인 중 어머니의 가르침은 사회적 책임감을 설명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그 밖에 아버지의 불신, 가르침, 어머니의 관심도 각각 사회적 책임감을 설명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들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어머니가 자녀에게 타인에 대한 배려나 공공의식 등에 대해 일상적으로 가르치며 자신도 모범을 보이는 행동은 청소년의 성별이나 발달단계에 관계없이 자녀의 사회적 책임감을 설명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반면 아버지의 양육행동 하위요인에서는 불신이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감을 설명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즉 아버지가 자녀를 미더워하고 자녀의 생활에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을수록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감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 자녀의 사회도덕적 발달에 있어 어머니의 인성교육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두 가지 발달특성에 기여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자기정서적 특성인 자아존중감 발달에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불신과 부모의 관심이 중요하게 관련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부모-자녀 간 긍정적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하지만, 청소년의 사회도덕적 특성인 사회적 책임감의 발달에는 아버지의 불신이나 어머니의 관심보다 가르침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감 발달에는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이고 원만하게 유지되는 것 이상의 양육행동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며 자녀를 적극적으로 훈육하고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의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자녀의 도덕적 품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양육행동에 한국의

전통 가정에서 중시되었던 가정교육, 즉 올바르게 적극적인 훈육과 가르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또한 청소년의 발달특성에 기여하는 부모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어머니의 경우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자녀를 애정으로 대하는 역할, 즉 주양육자로서 기본적인 보살핌의 기능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기여하고 일상생활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 및 공공의식을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일깨워주는 역할, 즉 가정 내 교육담당자로서의 기능이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감 발달에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아버지의 경우 자녀를 못 미더워 해서 자녀의 생활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책임감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유교문화권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평가적 기능이 자녀에게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경우 실질적으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절대적인 시간의 양이 어머니에 비해 적고 이러한 기본적인 시간의 제한이 자녀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부-자녀 관계에서 아버지의 불신은 다른 순기능적인 상호작용으로 상쇄되기 힘들므로 그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양육에 있어 청소년자녀의 발달특성에 기여하는 아버지의 기능과 어머니의 기능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한국적 부모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책임감 발달과 관련이 있다.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자녀를 가르치고 존중하며 관심을 보일수록, 자녀를 불신하지 않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책임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관련성의 강도는 구체적인 발달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어머니의 불신은 사회적 책임감보다는 자기정의적 특성인 자아존중감과 보다 밀접히 관련된 반면, 부모의 가르침은 자아존중감보다는 사회도덕적 특성인 사회적 책임감 발달과 더 밀접히 관련되었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한국적 부모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책임감 발달에 기여한다. 특히 부모의 관심은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기여하고 어머니의 가르침은 자녀의 사회적 책임감 발달에 크게 기여하며, 아버지의 불신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책임감 발달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한국적 양육행동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책임감 발달에 있어 전반적으로 초기청소년 집단보다 후기청소년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는 자녀의 성별이나 발달단계에 관계없이 사회적 책임감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들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발달특성 중 개인적 영역의 특성을 넘어 사회적 책임감과 같이 사회적 수준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를 함양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지각을 중심으로 양육행동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부모 각각의 지각 또는 제 3인의 보고를 바탕으로 양육행동을 측정하여 이를 청소년의 발달특성과 관련지어 살펴본다면 이들 관계와 보고자 또는 측정방법의 차이에 대해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 가정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을 하나의 쌍으로 보고 이들을 동시에 분석한다면 한국 부모의 양육을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 양육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발달특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혜영 (2000). 보호관찰청소년의 비행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및 부모양육행동의 영향력. *한국아동복지학*, 10(1), 9-31.
- 박선영 (1987).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정체감과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 김의철 (1998). 청소년 비행과 성취행동, 가정환경, 귀인양식, 건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29-53.
- 박정희 (2002). 부모의 가정교육방향 및 양육행동이 자녀의 심리사회성숙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숙 (200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개념과 숨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석한, 노경선, 허묘연, 정현옥, 이소희, 김세주 (2001). 청소년기 문제행동과 부모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0(4), 605-615.
- 신나나, 도현심 (2000).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상호작용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3), 99-113.
- 양병화 (1998).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 이사라, 박성연 (2001). 부모의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가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아동학회지*, 22(4), 17-32.
- 이숙, 우희정, 김미란 (2000). 어머니의 애착과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 3(1), 64-72.
- 이순형, 이영미 (1992).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불일치. *청소년학연구*, 1(1), 59-75.
- 이차선 (199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요인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정하, 정옥분 (2004).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한국인간발달학회지*, 11(4), 55-73.
- 원유미 (1999).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결정 유형과 자녀 자아개념과의 관계. *교육연구*, 18, 79 - 103. 원광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정영숙, 김영희, 박경옥, 이희숙, 채정현, 이종섭 (1999). 청소년의 성별로 본 사회화와 생활 환경. *대한가정학회지*, 37(9), 103-127.
- 정옥분, 김광웅, 김동춘, 유가효, 윤종희, 정현희, 최 경순, 최영희 (1996). 세계화를 위한 '효' 가치관 정립과 자녀양육 방향모색. 한국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 연구보고서.
- 최재경 (1995). 청소년 비행과 부모의 양육행동 사회적 문제해결 기술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규숙 (1999). 부모양육 태도와 중요한 타인이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명희 (1999). 사회과학을 위한 통계적 방법. 서울: 자유아카데미.
- 허유정 (2002). 청소년의 행동억제 기질과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이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hao, R. K. (1994). Beyond parental control and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Understanding Chinese parenting through the cultural notion of training. *Child Development*, 65, 1111-1119.
- Collins, W. A. (1990).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the transition to adolescence: Continuity and change in interaction, affect, and cognition. In R. Montemayor, G. Adams, & T. Gullotta (Eds.), *Advances in adolescent development: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A transitional period?* (Vol. 2, pp. 85-106). Beverly Hills, CA: Sage.
- Conrad, D., & Hedin, D. (1981). *Instruments and scoring guide of the experiential education valuation project*. St. Paul, MN: Center for Youth Development and Research. University of Minnesota.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Co.
- Erel, O., & Burman, B. (1995). Interrelatedness of marital relations and parent-child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8, 108-132.
- Fabes, R., & Martin, C. L. (2000). *Exploring child development-Transactions and transformations*. Boston: Allyn and Bacon.
- Feldman, S. S., & Gehring, T. M. (1988). Changing perceptions of family cohesion and power across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 59, 1034-1045.
- Fuligni, A. J. (1997). The academic achievement of adolescents from immigrant families: The role of family background, attitudes, and behavior. *Child Development*, 68, 351-363.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 103-115.
- Gurney, P. W. (1988). *Self-esteem in children with special education needs*. London: Routledge.
- Kanji, G. K. (1999). *100 Statistical Tests*. Thousand Oaks, CA: Sage.
- Kim, U., & Choi, S. H. (1994).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child development. A Korean perspective. In P. Greenfield & R. R. Cocking (Eds.) *Cross-cultural roots of minority child development*.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 Paikoff, R. L., & Brooks-Gunn, J. (1991). Do parent-child relationships change during puberty? *Psychological Bulletin*, 110, 47 - 66.
- Sharp, S., & Cowie, H. (1998). *Counseling and supporting children in distress*. Sage Publications.
- Tsay, J. C. (1998).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s' internalized problems: A multiple-informant approac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1 차원고접수 : 2005. 12. 19.
수정원고접수 : 2006. 02. 27.
최종게재결정 : 2006. 03. 06.

Relationships between Korean parenting and Adolescents' Developmental Outcomes on Self-Esteem and Social Responsibility

JungHa Lim

Dept of Psychiatr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The present investigation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Korean parenting behaviors and adolescent developmental outcomes on self-esteem and social responsibility. Participants were 439 adolescents in two parent families in Seoul and Kyunggi-do. The Korean Parenting Inventory (Lim & Chung, 2004), Self-Esteem Scale (Lee, 1999) and Social Responsibility Scale (Conrad & Hedin, 1981) were used to assess parenting behaviors and developmental outcomes.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alyses, z-tes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Korean parenting behavior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dolescents' developmental outcomes. 2) Parental attention and paternal distrust explained 14% in the variance of adolescents' self-esteem and that parental discipline, paternal distrust and maternal attention explained 25% in the variance of adolescents' social responsibility. 3) Paternal parenting behaviors accounted for self-esteem and social responsibility more in late adolescent group compared with those of early adolescent group. In addition,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accounted for adolescents' social responsibility regardless of adolescent developmental stage or gender.

Key words : Korean parenting behaviors, adolescent, self-esteem, social responsibility